

12 YOUNG ARTISTS PAINTINGS

한국 예술의 생생하고 젊은 감성들

엘르의 자선 프로젝트 'Hope & Dream' 옥션 파티에 참여한 의식 있는 12인의 영 아티스트는 과연 누구일까. 작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과 아티스트에 관한 짧은 크리틱, 그리고 이들을 옥션으로 이끈 큐레이터 이지윤과의 의미 있는 토크.

HONG YOUN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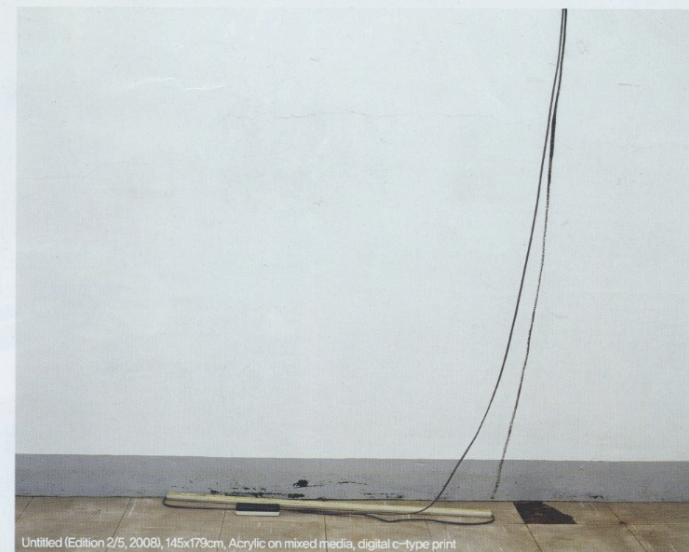
홍영진은 한때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공부 중이었다. 그는 기존의 작품들에서 이미지를 차용해 재조합하는 것을 즐긴다. 새롭게 창조된 이미지는 드로잉, 자수 등으로 표현된다. 버스 정류장 등 공공 장소에 작품을 무작위로 붙이는 '퍼블릭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 책으로 펴냈다. 'Image Untitled'는 당시 프로젝트에 포함했던 작품으로, '조종도'와 '사망' 정물화의 이미지를 차용해 만든 것이다.



Image Unidentified (2008, 50 Limited Edition, Set of A Poster And A Book), 59.5x82cm, Photomontage, digital print.

KANG EEMYUN

강임윤은 한국에서 동양화를 전공하다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녀는 국내 최초의 로열 아카데미 출신이기도 한데, 올해 졸업할 앞두고 있는데, 강임윤의 작품들을 보면 붓 터치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동양화를 그리며 숙련된 특유의 붓놀림 덕분이다. 유화에서 부드러운 터치로 표현된다. 이번에 나온 것들 중 'Horse Among The Horses'는 그녀의 초기 작품이다. 'Fungal Land'는 작품을 나란히 놓으면 점점 풍경이 확장되는 연작이다. 총 네 점 중 두 점은 영국 록밴드 롤링 스톤즈 멤버 중 한 명이 학교 전시회를 찾았다가 족실에서 작품을 사기도 했다.



Untitled (Edition 2/5, 2008), 145x179cm, Acrylic on mixed media, digital c-type print



Untitled (2008), 200x200cm, Oil on linen

CHANG YUJEONG

장유정은 2007년 런던의 골드스미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현재는 독일에 살고 있다. 그녀는 페인팅, 설치, 사진 작업을 연달아 수행한다. 일단 공간을 페인팅으로 칠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는 식이다. 작업이 이뤄지는 곳은 그녀의 스튜디오일 때도 있고, 전혀 다른 외부의 공간일 때도 있다. 단지 평면에 페인팅을 칠하는 것뿐 아니라, 공간을 장식하는 오브제들을 배치하는 등 전체적인 공간 연출도 그녀의 몫. 사진을 찍은 후 공간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다.

KIM JIN

자신 웹사이트를 졸업한 김진은 런던에서 '라이징 아티스트'로 한참 소개되고 있다. 특히, 단면을 배경으로 두지 않고, 공간 안에 존재하는 포트레이트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영국이라는 아방가르드 공간에서 사는 작가의 아이덴티티 인식에서 비롯된다. 때로는 통찰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영감이 솟아나는 느낌이 고스란히 작품에 투영되는 것. 'Untitled' 역시 언뜻 봐서는 작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이 두드러진다.

KWON DAEHUN

권대훈은 웹사이트를 졸업하고 런던에서 활동 중이다. 국내에서는 썬스페이스와 선컨템포러리,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표현하는 데 귀재다. 모두의 눈에 보이는 오브제를 관찰해 거기 숨어 있는 기호들을 찾아내는 식이다. 이는 사진, 비디오,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시각 매체로 표현된다. 'The Wind'는 런던의 자연 풍경, 특히 나뭇가지가 만들어내는 실루엣에서 알파벳 기호를 발견해 사진을 찍고 리터칭으로 컬러를 더했다.



The Wind (2008, Set of 6), 31x22cm, C-type prints with color ink